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회장 취임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이사장 취임사 | KOA Visiting FEMECOT Congress and Annual Meeting of Taiwan Orthopaedic Association | 2024년 제6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 2023년도 수련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 학회 회원 공지 |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국내학술행사 | 국제학술행사 | 모집공고 |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 동양고전산책 | 출간소식 |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릿 안내

회장 **이명철** · 이사장 **석경수** · 총무이사 **김성환**



11

2023 November vol.405

故김형순 교수 추도사

참 따뜻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작고한 아내를 선산에 모시며 “이곳이 내가 묻힐 자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날. 시간이 흘러 교수님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 영면에 드시던 날도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그날의 온기처럼, 곱고 따뜻한 교수님의 마음이 벌써 그리웁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대한슬관절학회장을 역임하신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1973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무릎관절에 관절경 수술을 도입한 선구자이셨습니다. 어느 대학보다 빠른 1980년에 정형외과 세부 분과설립에 앞장서며 슬관절분과를 담당하셨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한슬관절학회’의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거목과 같던 교수님은 저에게는 더없이 따스하고 자애로운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였던 저에게, 수술 중간에 관절경 Scope를 보여주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셨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맡아주셨던 것도, 저에게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전화를 주시며 함께 기뻐해 주셨던 것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은 교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새벽 6시 30분에 시작하는 학회에 앞서, 테니스로 새벽 운동을 하고 오셨던 것이나,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기꺼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랫동안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건강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마지막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셨습니다.

아이와 같은 천진함과 따뜻한 인정 또한 교수님을 수식하는 말일 것입니다. 원로 골프 모임에서 10년이나 젊은 노성만 교수님보다 드라이버 거리가 단 1미터라도 앞서가면,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시던 날, 영정사진을 보시면서 “참 고왔던 사람이 나를 만나 저렇게 주름살이 늘었다.”며 저에게 평생 아내를 아끼며 사랑할 것을 당부하시던 말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퇴임한 교수님의 손에는 항상 Time지와 낡은 영어사전이 들려 있을 만큼, 자신을 관리하며, 공부하는 것을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교수님, 참으로 그리웁습니다.

교수님이 홀로 개척했던 길은, 이제 수많은 후배들이 다니는 광활하고 든든한 대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의 비약적인 성장은 교수님의 공로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 의학 발전과 대학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셨던 교수님, 그 소중한 가르침을 받들어 세계 속에 빛나는 전남대학교가 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전에 항상 치료와 연구, 주변 사람을 챙기는 일에 마음 쓰셨던 교수님, 사랑하는 아내와 못다 나눈 정을 함께 하시며, 부디 저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정성택



Contents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회장 취임사	04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이사장 취임사	05
KOA Visiting FEMECOT Congress and Annual Meeting of Taiwan Orthopaedic Association	06
2024년 제6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07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08
학회 회원 공지	08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09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10
국내학술행사	11
국제학술행사	13
모집공고	13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14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15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16
동양고전산책	19
출간소식	22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릿 안내	25

정형외과학회소식

2023 November vol.405 11월호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학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학회의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고 매우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기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SNU서울병원

66대 집행부를 비롯한 이전 선임 집행부들이 임기 중에 중점을 두고 노력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학회 재정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진료수가와 진료영역과 관련된 우리 회원의 권익을 위해 대내외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학회지가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학회의 시스템을 간소화 선진화하는 일 등은 저의 임기 내에도 중단되는 일 없이 꾸준히 더 열심히 실천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미래인 정형외과 전공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수련환경, 또 이를 평가하는 방법 등에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련의 질과 환경을 발전시키고 정형외과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춘, 추계 학술대회와 우리 학회 주관의 연수강좌 등 학술대회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봉직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참가하고 싶어 하는 학술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술대회가, 격변하는 현재와 미래의 정형외과를 반영하고, 주변 학문과 융합하여 복합적인 학문의 발전을 이끄는 데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발전은 우리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많은 회원들이 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임기 내내,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로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회장 이명철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이사장 취임사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집행부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석경수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여러 자문위원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최고의 학회로 발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하여 큰 공헌하여 주신 66대 집행부 김기택 회장님, 정홍근 이사장님, 이준규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명철 회장님, 김성환 총무님과 힘을 합쳐 전임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인 학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경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첫째, 65대 집행부에서 시행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의 결과를 토대로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모토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의 위상에 걸맞은 외적인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캐치프레이즈의 일관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따라 바꿀 것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관절과 척추 통증 원인부터 해결까지 정형외과"로 제안합니다.
- 둘째, 학회의 본질인 학술대회의 국제화에 더욱 힘을 쏟아 적어도 아시아지역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최고의 학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각국과 인적 교류 및 MOU를 맺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Guest nation으로는 싱가포르 하고자 합니다.
- 셋째, 학회의 자랑인 SCI-E journal인 CiOS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분간 IF의 상승 및 유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은 계속하고자 합니다.
- 넷째, 만성적인 저수가와 불합리한 중증-경증 분류 체계로 인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가 개선을 위하여 몇 년전 발간한 정형외과 건강 보험 관련 백서를 이용하여 정형외과 보험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불합리한 삭감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과 학회 회원 간에 양자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여 회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다섯째, 정형외과 전공의 교육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겠습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에 맞는 교육목표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의 교육센터에 작업 중인 연차별 수련 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의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공의들이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공의들이 어느 수련병원에서나 표준화된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째, 정부에서 수도권-지방간의 전공의 비율을 현재 64:36에서 50:50으로 맞추고자 하였으나 많은 반발로 55:45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형외과는 엄격한 수련환경 평가에 따라 현재의 전공의 TO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혼란 없이 슬기롭게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수련환경평가 위원회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째, 학회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진료 영역에 대한 타 전문과목의 영역 침범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캠페인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계 분야의 진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인 정형외과 TV의 contents를 늘리고 분과학회 유튜브와도 연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 여덟째, 66대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학회 회관의 구입문제는 재정적 문제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학회건물을 마련하고자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형외과학회의 큰 축을 이루는 정형외과의사회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동료 선후배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충고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명철 회장님, 김성환 총무님과 힘과 지혜를 모아 학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이사장 석경수

KOA Visiting FEMECOT Congress and Annual Meeting of Taiwan Orthopaedic Association



Mexic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FEMECOT가 지난 10월 18일(수)부터 10월 21일(토)까지 4일간 Leon, Mexico에서 진행되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표로 제66대 집행부 정홍근 이사장 외 9명이 멕시코 학회에 참석하였고 총 28개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2023 Annual Meeting of Taiwan Orthopaedic Association이 지난 10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양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Total Ankle Arthroplasty: 3-Component Salto Experience' 주제를 가지고 제66대 집행부 정홍근 이사장이 발표를 했다.



2024년 제6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1.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시험 일시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2024년 1월 30일(화), 13:00~17:30	2024년 2월 2일(금), 14:00
2차 시험(객관식)	2024년 2월 5일(월), 09:00~11:30	2024년 2월 19일(월), 14:00
2차 시험(구술시험)	비수도권 응시자 : 2024년 2월 5일(월), 13:00~ 수도권 응시자 : 2024년 2월 6일(화), 09:00~	

※ 합격자 발표 및 확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1차 시험 안내 - SBT 시험

1) 시험 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13:00~17:30
- ② 장소 : 삼육대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
- 2) 필수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 3) 시험시간, 문제 수, 배점, 분야별 문항 수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13:00~15:00)	120분	객관식(사진 또는 영상문제)	80문제	0.625점
휴식시간(15:00~15:30)		30분		
2교시(15:30~17:30)	120분	객관식(사진 또는 영상문제)	80문제	0.625점
총계	240점		160문제	100점

* () - 외상 문항 수

구분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척추	견주관절	수부	소아	종양	외상(일반)	감염대사	기초재활	총계
문항수	17(2)	18(3)	15(2)	18(3)	15(2)	18(3)	19(5)	10	13	8	9	160

3. 2차 시험 안내

1) SBT 시험(객관식)

시험방식 : 태블릿 PC로 답안작성
필수지참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구

2) 구술시험

시험방식 : 정형외과 일반 구술시험, 자동 추첨으로 문제 선택
필수지참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 서류로 제출한 논문, 수술기록지, 전공의 기록부(서류별 제본)

3) 시험 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SBT 시험 : 2024년 2월 5일(월) 09:00~11:30(08:30까지 입실 완료할 것)
구술 시험 : 2024년 2월 5일(월) 13:00~18:00
2024년 2월 6일(화) 09:00~18:00
- ② 장소 : 용산철도고등학교(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 ③ SBT 시험 시간, 문제 수, 분야별 문항 수, 배점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09:00~11:30)	150분	객관식(사진 또는 영상문제)	100문제	0.7점

* () - 외상 문항 수

구분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척추	견주관절	수부	소아	종양	외상(일반)	감염대사	기초재활	총계
문항수	12(2)	12(2)	7(1)	12(2)	7(1)	12(2)	14(4)	6	6	5	7	100

④ 2차 시험 점수 : SBT 시험 + 구술시험 = 총 100점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매년 회갑을 맞으신 수연회원께서는 해당연도 춘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드리오니 아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현	강도원	강동하	강오용	강용호	강흥식	고경석	공경석	구분섭	권기탁	권현섭	김 승
김 철	김경순	김균환	김기성	김기호	김남훈	김동수	김동철	김동형	김민기	김범수	김병철
김상돈	김상욱	김석준	김선규	김성수	김성진	김시환	김연성	김영성	김영중	김영팔	김영호
김용환	김용휘	김원진	김윤식	김응주	김종욱	김진구	김진학	김태훈	김하용	김현철	김형석
김형수	김형진	나기호	남기운	남명곤	노동근	노연섭	노영복	류천환	문성환	문영완	문용호
문진경	문희철	민경대	박 현	박 원	박기원	박동욱	박수성	박용한	박정호	박중훈	박찬지
박찬협	박철홍	박해인	박해일	박현중	박형빈	박흥기	박흥식	배성범	배종우	백대현	백수동
백승창	서대진	서동원	서상동	서승우	서원우	서정환	서진수	성호식	소창성	손수민	송광진
송영오	송원철	송일오	송주현	신득순	신재기	신재훈	신중환	신태식	안기찬	안병문	안상천
안영인	안찬석	엄주석	염동현	염재광	오기영	오선태	오세인	오진록	오창수	오형호	왕기봉
우병철	위 성	위요섭	유용환	유재두	유재응	유주형	유창무	유희준	윤성훈	윤창훈	윤현기
은승표	이건우	이계형	이규승	이근일	이기웅	이덕희	이도경	이동기	이동현	이동호	이동환
이득용	이봉진	이상재	이선우	이승림	이승찬	이승하	이영국	이영석	이영호	이원희	이은준
이의형	이인묵	이정구	이중봉	이현상	이호승	임경삼	임관수	임용찬	임인택	임태행	전철우
정도혁	정선균	정영률	정영석	정용진	정용호	정유진	정진모	정창훈	정홍근	조규정	조득만
조상열	조용근	조태연	지정규	채수성	최병무	최용수	최우성	최정기	최창혁	한경진	한길주
한 석	한수일	한영찬	허정필	홍성수	황성택	황재욱					

학회 회원 공지

1.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드리오니 로그인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학회 정기 간행물 발송 현황 안내

종류	발행 주기	발송 구분	우편 구독 비용
소식지	매월 말일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유료 구독 신청 불가
국문학회지 (JKOA)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3) 유료 구독 회원 우편발송	연 48,000원
영문학회지 (CIOS)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유료 구독 회원 및 자문위원 우편, 이메일 발송	연 48,000원

* 유료회원은 우편발송 대상이 아닌 회원 중 우편료를 선납해 주신 회원입니다.

4.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명 : 정형외과TV <https://www.youtube.com/@orthopedicstv>

JKOA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 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3.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 완료된 논문은 저자 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 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 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종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 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 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6.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 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CiOS 공지사항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영문 저널 CIO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가 SCI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논문 투고와 적극적인 논문 인용으로 힘써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편집진은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SCI 등재 유지는 물론 명실상부한 정형외과 대표 국제 저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김한수 배상

1. CIOS는 현재 SCI, SCOPUS, PUBMED, MEDLINE,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 CIOS 또는 대한정형외과학회(JKOA)에 반드시 논문 한 편 이상 게재가 필수사항입니다.
3. 원고 투고 시 저자식별번호 ORCID No.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SCI 논문은 2019년 3월호(1권 1호)부터 적용되며 Journal Impact Factor™ (JIF)는 2022년 6월 부여되었습니다.
5. 2022년 7월 기준 CIOS IF 지수는 2.503입니다.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증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 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증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고, 해당 학술지는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견주관절,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AOSM(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학회지) 학회지이다.
 -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기술학회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Scopus 등재된 관련학회 학술지 :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
 -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 5)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 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1년도 당해연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 2021년도 직전 4년 :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 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절기세포재생의학학회
-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국내학술행사

1. 대한근골격종양학회 2023 전공의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11월 25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
 - 문의 : Tel. 031-920-2452, E-mail. kmsts@kmsts.org
2.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2023 제9차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11월 26일(일)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우덕윤덕병홀
 - 문의 : Tel. 062-220-3147, E-mail. office@kossm.or.kr
3. 대한스포츠학회, 삼성서울병원 2023 The 15th SMC Shoulder Symposium
 - 일정 : 2023년 11월 26일(일)
 - 장소 :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 문의 : Tel. 02-3410-3501, E-mail. smc.seul@gmail.com
4. 대한슬관절학회 제15회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12월 2일(토)
 - 장소 :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
 - 문의 : Tel. 070-8182-2924, E-mail. koreanknee1983@naver.com
5.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23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12월 3일(일)
 - 장소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
 - 문의 : Tel. 010-2038-0234, E-mail. klas1991@naver.com
6. 세브란스관절경연구소 36th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Shoulder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정 : 2023년 12월 3일(일)
 - 장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문의 : E-mail. aac2008@daum.net
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2023 Catholic Orthopedic Symposium III
 - 일정 : 2023년 12월 3일(일)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2-2258-2838, E-mail. cmcos2018@naver.com
8.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근골격연구회 제2회 Severance Orthopaedic Review 세브란스 근골격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12월 9일(토)
 - 장소 :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문의 : E-mail. sor@yuhs.ac
9.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40주년 기념 2023년 골관절연구회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12월 10일(일)
 - 장소 : 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로비층 호흡기센터강당
 - 문의 : Tel. 053-620-3640

10. 고려대학교 슬관절연구회 제10회 절골술(Cadaver Workshop)

- 일정 : 2024년 2월 4일(일)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및 강의실
- 문의 : E-mail, ky10326@naver.com

11. 명지병원&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Shoulder Symposium

- 일정 : 2024년 5월 25일(토)
- 장소 :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 문의 : Homepage, <https://shoulderhee.modoo.at/?link=5ax5uxta>

12.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도	개최 월일	병원명	년도	개최 월일	병원명
2023	6월 8일	건국대병원	2024	3월 14일	한일병원
	7월 13일	서울의료원		6월 13일	삼성서울병원
	9월 1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7월 11일	보라매병원
	11월 9일	순천향대병원		9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12월 14일	국립중앙의료원		11월 14일	일산동국대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2022년 1, 2, 4, 5, 8, 9, 10, 12월 / 2023년 1, 2, 3, 4, 5, 8, 10월 / 2024년 1, 2, 4, 5, 8, 10, 12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 E-mail, minbom@naver.com (김민범 교수)

13.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도	횟수	개최일	병원명
2023년	제154차	7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55차	9월 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제156차	11월 1일	연세사랑병원
2024년	제157차	3월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제158차	5월 1일	세란병원
	제159차	7월 3일	아주대학교병원
	제160차	9월 4일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제161차	11월 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최 • 일정 :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 5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국제학술행사

1. 대한척추외과학회 KSSS Webinars 3rd Spine Issue / Current Concepts in Cervical OPLL Surgery

- 일정 : 2023년 12월 16일(토)
- 장소 : 온라인 송출
- 문의 : E-mail, leeleo98@gmail.com

2. 명지병원 제15차 Shoulder Cadaveric Workshop

- 일정 : 2024년 2월 23일(금) ~ 24일(토)
- 장소 : 태국, 방콕
- 문의 : Tel. 010-5577-9118

3. 대한족부족관절학회 IFFAS 2024

- 일정 : 2024년 5월 30일(목) ~ 6월 1일(토)
- 장소 : 서울 강남 코엑스
- 문의 : E-mail, info@iffas2024korea.com

모집공고

1. 청담리온 정형외과 유급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및 스포츠의학
- 문의 : Tel. 010-5316-9503

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척추
- 문의 : Tel. 010-8723-8434 E-mail, oskim@paik.ac.kr

3.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수부, 견주관절, 척추
- 문의 : Tel. 010-3214-4303, E-mail, 97kdg@hanmail.net

4.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임상강사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외상 및 족부족관절, 슬관절, 일반정형외과
- 문의 : Tel. 010-3214-4303, E-mail, 97kdg@hanmail.net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강사(펠로우) 모집

- 분야 및 인원 : 척추, 외상, 견주관절, 족부족관절, 슬관절, 고관절, 수부, 미세수술
- 문의 : Tel. 010-7253-5332, E-mail, osjungil@korea.ac.kr

6. SNU 서울병원 유급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 문의 : Tel. 010-5766-7310, E-mail, sseoulmanager@gmail.com

7. 강북삼성병원 임상강사(펠로우) 모집

- 분야 및 인원 : 척추, 견주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부, 수부, 미세수술
- 문의 : Tel. 010-9923-3971, E-mail, dw.son@samsung.com

회원동정

ㄹ 축하합니다

- 전인호 교수(서울아산병원)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SICOT, 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pedic Surgery and Traumatology) Executive Committee의 Member At Large 및 카이로 WOC 부회장(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으로 선출

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준우 회원(경북대학교병원) 부친상
- 김근우 회원(강원대학교병원 병원장) 별세
- 최선진 회원(첨단종합병원) 부친상
- 김용식 회원(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 모친상
- 송은규 회원(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부친상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3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3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4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 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번호	성함	소속	모금 날짜	입금액	누적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월 25일	10,000원	880,000원
2	안길영	포항성모병원	10월 30일	50,000원	850,000원
				현재 모금액 : 466,550,000원	

▶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전남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남대학교	30,000,000원
4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5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교실	건국대학교	27,500,000원
6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20,000,000원
7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8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9	경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북대학교(3년간 3천만원 약정)	10,000,000원
10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1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10,000,000원
12	대한척추종양학회	대한척추종양학회	10,000,000원
13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14	경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상대학병원	8,000,000원
15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5,000,000원
16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함	소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중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6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7	손부홍 회원	(구)손부홍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8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9	정영복 자문위원	현대병원	5,0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함	소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경추 경막외 신경박리술 후 심정지 및 지주막하 출혈 발생한 사례



이한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계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퇴행성변화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경추의 경막외 신경박리술을 받던 중 급격한 상태 악화로 반혼수 상태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타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지주막하 출혈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좌측 위약감(Weakness)으로 경과관찰 중임.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의 시술 전 사전설명이 부족하였고, 술기가 미흡하여 신경 및 혈관을 손상시켜 좌측 편마비와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남게 되었음을 주장함.

[치료과정]

신청인(여/60대)은 어깨통증과 상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X-ray 결과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변화, 후만 변형 및 추간공 협소 등 소견을 받았고, 이를 뒤 MRI 시행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같은 날 경추의 경막외 신경박리술(C-pen) 위해 입원하였음. 당일 오후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193/96mmHg, 맥박 83회/분, 체온: 37.4도였으며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은 없었음. 이후 혈압 170/90mmHg 확인되었고, 시술받기 위하여 걸어서 이동 당시 혈압 160/90mmHg이었음. 시술 시작 약 15분 뒤 의식상태 반혼수. 사지 청색증이 관찰되고 활력징후 측정이 안되며, 산소포화도 및 맥박 측정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산소마스크 최대 흡인과 심폐소생술 시행되었고 멸균생리식염수 1L 급속 주입(Full drop)되었음. 기관 삽관, 산소 앰부 배강이 시작되었고, 이후로도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안되며, 의식 변화 없었으며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음. 이후 약 15분 경과 후 에피네프린 1 ample 정맥주사 후, 맥박 136회/분 측정되며, 산소포화도 92% 확인됨. 동공 반사 반응 없으며 혈압 측정 안되어 심폐소생술 계속됨. 추가로 에피네프린 1 ample 정맥주사 후 산소포화도 97% 확인됨. 5분 후 혈압 200/90mmHg, 산소포화도 97% 확인됨. 환자 자발 호흡 돌아왔으나, 의식상태 변화는 없었음. 심폐소생술 멈추고 앰부 배강 시행함. 2분 후 심전도 결과 정상 리듬(Normal

sinus rhythm) 확인되었고, 이후 혈압 72/53mmHg, 맥박 120대로 불규칙하게 측정되며, 자발 호흡 있는 상태로 산소포화도 95% 측정됨. 환자 자발 호흡 돌아오면서 기침 및 가래소리 들려 흡인 시행함. 이후 혈압 189/91mmHg 확인됨. 동공 반사, 구개 반사 회복되었으며, 혈압 159/89mmHg, 맥박 107회/분, 체온 36.6도로 확인되어, 환자는 기관 삽관 유지한 채로 산소포화도 최대 흡인하며 〇〇〇병원 응급실 전원 되었고, 뇌 CT 시행 결과 지주막하 출혈 진단으로 뇌혈관조영술 후 응급중환자실 신경외과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입원 치료 1주일 경과 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신경외과 병동으로 옮겼고, 3일 뒤 좌측 위약(Weakness), 보행 제한 소견으로 △△△재활병원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 작업치료 등) 시행 받은 후 2주 뒤에 퇴원함. 이후 외래 경과관찰 중임.

[분쟁 쟁점]

환자 측: 피신청인 의료진은 시술 전 시술에 투여될 약물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자는 고혈압 환자로 당일 혈압 상승이 있는 상태였으나 시술을 강행하였음. 시술 중 혈압 상승 시, 즉각 시술 중단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시술을 계속하였고, 의료진의 술기 미숙으로 시술 중 신경 또는 혈관을 손상시켜 심정지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가 남게 되었음.

병원 측: 시술 전, 시술 시 투여될 약물 및 후유증에 대해 환자 본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환자 동의하여 시술을 진행하였음. 시술 당일 발생한 심정지는 뇌출혈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시술 전 처치의 적절성(활력징후 및 약물 투여의 적절성 포함)

해당 시술은 퇴행성 경추 질환에 의한 신경병증에 시행 가능한 것으로 시술의 적응증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신청인은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을 복용 중이었음.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시술 당일 입원 시 혈압은 193/96mmHg, 시술 직전에는 160/90mmHg로 측정되어 혈압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시술 전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검토됨(참고문헌 1).

2. 시술의 적절성(활력징후 및 약물 투여의 적절성 포함)

전원 후 〇〇〇병원에서 촬영한 영상 소견 및 검사 소견에서 CT 결과 시술이 시행된 위치 주위에서 척수 내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며, 척수강내와 두개강내(경막하 또는 지주막하공간으로 추정)에 다발성으로 공기 음영이 관찰되고, 뇌의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만한 혈관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심장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추정할 때 집도되는 시술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 도관이 경막외 공간에 위치함을 확인 후 약물을 주입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도관이나 주삿바늘에 의한 경막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검토됨.

3. 심정지 후 처치의 적절성

시술 후 전실 도중 환자의 의식소실 및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및 약물치료 등의 응급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며 전원 조치도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임.

나. 인과관계

심정지의 원인

〇〇〇병원 전원 후 시행한 심장 관련 검사에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뇌혈관 검사에서 뇌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이 배제되었음을 고려할 때 심인성이나 급격한 두개강 내압 상승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됨. 한편 시술 당일 CT상 경막 내 혈종의심 소견이 경추 5, 6번 사이에서 관찰되었고 상위 경추 척수강과 두개강 내에서 다발성 공기 음영이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척수 지주막하 공간으로 마취제 등 약물이 주입되거나, 척수의 직접 손상 등으로 인하여 호흡 마비가 선행되고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에 의해 심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검토됨.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병원 전원 직후 뇌 CT상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다음 날 뇌 CT상 지주막하 출혈이 소실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술 당일 뇌혈관 조영술상 뇌동맥류 같은 뚜렷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게서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뇌혈관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척추 시술 부위 근처의 척수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척수액의 순환에 따라 두개강 내 지주막하 공간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좌측 편마비의 원인

좌측 편마비는 시술 후 발생하였으나 재활치료 기록과 경과를 검토하면 계속 호전된 것으로 검토되므로 편마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원인은 뇌병변이 아니라 경추 척수 내 혈종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검토됨.

다. 종합소견

신청인은 시술 전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시술 후 발생한 호흡부전과 이에 따른 심정지는 전원 후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고혈압과는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됨. 시술 시 경막천공이 발생하였고 척수 지주막하 공간으로 마취제 등 약물이 주입되었거나, 척수의 직접 손상 등으로 인하여 호흡마비가 선행되고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에 의해 심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검토됨.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 상 경막외강 신경박리술의 목적 및 적용대상, 시술방법, 후유증 및 합병증의 내용,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 △△△재활병원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하지 근력은 우측은 G5 좌측은 G3 + 였고 심부건반사는 약간 저하된 상태였음. 40일 뒤 기록에서 좌측의 근력은 G3에서 G4로 호전되었고 다섯달 경과 후에는 걷기연습과 일상생활동작(activity of daily living)은 독립적으로 가능하다고 기록이 확인되므로, 좌측 편마비는 경추 경막외 신경박리술 시술 후 발생하였으나 계속 호전된 상황으로 검토되므로 편마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원인은 뇌병변이 아니라 경추 척수 내 혈종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검토됨.

[참고문헌]

1. Goldman L, Caldera DL et al : Cardiac risk factors and complications in non-cardiac surgery. Medicine 1978, 57(4) : 357- 370.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예방 Tip]

본 건은 경추부 경막외 신경박리술 도중 사지 청색증이 관찰되고 활력징후 측정이 안되며, 산소포화도 및 맥박 측정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사례임. 전원 간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와 뇌 CT 상 지주막하 출혈과 기뇌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병변 소견이 없어 경추 경막외 신경박리술 도중 경막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출혈이나 국소마취제 같은 약물효과로 일시적인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검토됨. 그러므로 상기한 시술동의서 작성 시 경막 천공 같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며 시술 시 조영제가 경막외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 후 조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김인권 (한국 한센복지협회 회장)
(서울 예스병원 병원장)

吳越同舟 (오월동주: 원수가 한배에 탔다)

孫子兵法(손자병법)의 九地(구지)편에 있는 글이다. '감히 물어본다면, 아군의 군사를 술연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대답하여 말하길, 가능하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증오하는 사이지만, 두 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가 폭풍우를 만난다면, 좌우의 손처럼 단결하여 서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敢問, 兵可使如率然乎? 曰, 可, 夫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同舟而濟, 而遇風, 其相救也, 如左右手.)'. 率然(술연)이라는 뱀이 있다. 중국의 五岳(오악) 가운데 하나인 常山(상산)에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 속의 뱀이다. 술연은 행동이 대단히 민첩하고 성질 또한 몹시 사납고 용맹스럽다고 한다. 싸움에서도 지는 법이 없다. 상대가 머리를 때리면 꼬리를 들어 반격하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를 들어 반격한다. 허리를 공격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들면서 반격을 가한다. 그래서 술연은 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孫武(손무)는 그의 저서 손자병법에서 '용병에 능숙한 자는 술연처럼 부대를 지휘한다(善用兵者 譬如率然),'라고 했다. 용병을 잘하는 지휘관은 군대를 마치 술연과 같이 만들어 조직력과 협동심, 그리고 뛰어난 순발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은 병사들의 똘똘 뭉친 일체감이기 때문이다. 후에 손무의 후손인 손빈이 위혜왕 앞에서 방연과의 진법대결에서 보여준 것이 술연을 본뜬 긴 뱀 모양의 長蛇陣(장사진)으로 귀곡선생이 오직 손빈에게만 전수한 손자병법에 수록된 진법이다. 즉 지휘관은 서로 원수 간인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처럼 서로 화합과 단결이 되지 않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돕지 않고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 군대는 술연처럼 무적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吳나라 시조 太伯(태백)은 아버지 太王(태왕)이 어진 동생 계력과 나중에 주문왕이 되는 그의 아들 창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 하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荊蠻(형만:남쪽 오랑캐의 땅)으로 달아나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카락을 잘라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을 보였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어진 동생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여 예의 모범을 보인 오태백을 제후의 모범으로 평가하여 오나라의 역사를 사기세가의 첫머리에 기록하였다. 그 후 왕이 된 壽夢(수몽)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은 諸樊(제번)이고 둘째는 餘祭(여제), 셋째는 餘昧(여매) 그리고 막내는 季札(계찰)이었다. 계찰이 가장 어질었으므로 수몽은 자신의 사후 왕의 자리를 계찰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계찰은 장자를 제치고 막내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사양하였다. 그래서 큰아들 제번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제번은 자신의 후에는 동생들이 차례로 왕이 되어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계찰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여 아버지 수몽의 의도에 따르려 하였다. 그 후 여제가 왕위를 물려받았고 여제의 후에 여매가 왕이 되었으며 여매가 죽은 후 그의 동생 계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계찰은 왕이 되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며 멀리 달아났다. 이에 신하들은 여매의 아들 僚(요)를 왕으로 삼았다. 맏아들 제번의 아들 공자 光(광)은 왕위가 계찰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다음 왕위는 당연히 장자인 제번의 아들인 자신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초나라에서 망명한 伍子胥(오자서)를 영입하여 요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니 이가 오왕 闔閭(합려)다. 오왕 합려는 오자서와 병법가인 손무의 도움으로 오자서의 원수인 초나라를 공격하여 수도인 영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틈을 타 월나라가 침략하고 동생인 부개가 반란을 일으키자 서둘러 귀국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월나라 정벌 전쟁을 벌였다. 이때 맞은 화살의 후유증으로 죽게되자 그의 아들 夫差(부차)에게 월나라 왕 句踐(구천)이 부친을 죽였던 것을 잊지 말라고 유언하고,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게 했다.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겼다. 방 앞에 사람을 세워 두고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버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외치게 하였다. 잘 때는 침상이 아닌 방바닥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臥薪·와신)

월나라 왕 구천은 우임금의 후손이다. 그의 조상은 倉稽(회계)에 봉해져 우임금의 제사를 받들어 지켰다. 윤상의 시대에 오왕 합려와 싸우게 되어 서로 원망하며 공격했다. 윤상이 죽자 그 아들 구천이 왕위에 올랐다. 오왕 합려는 윤상이 죽었다는 소식에 군대를 일으켜 월나라를 정벌했다. 이때 오왕 합려는 구천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 그 아들 부차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오왕 부차 2년(기원전 494년), 부차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정예병들을 모아 월나라로 쳐들어갔다. 부차는 오자서의 도움으로 부초전투에서 월나라 왕 구천의 군대를 물리치고 월나라의 도움을 포위했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구천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회계산에서 농성을 하였다. 그러다가 오나라의 공격을 못 견디고, 대부 文種(문종)을 보내 오나라의 태재 백비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오왕 부차에게 화친을 요청하였다. 구천은 월나라를 오나라에게 넘겨주고, 자신과 자신의 부인은 오나라 왕의 노예와 노비가 되겠다고 하였다. 부차가 이를 받아들일려고 하자, 오자서는 지금 월나라를 멸해야 후환이 없어진다고 만류하였지만,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무시했다. 왕은 태재 백비에게 뇌물을 주어 월나라와의 화친을 받아들이게 하고, 오나라 군대는 월나라에서 철수하였다. 그 후 몇 년 만에 월나라 대부 范蠡(범려)의 공작으로 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걸으로는 부차에게 복종하는 척 하면서 은밀하게 오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월나라의 국력을 키우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오나라에서 겪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하여, 사방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오가면서 매일 쓰디쓴 쓸개를 핥아먹으며(嘗膽·상담)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오왕 부차는 월나라와 싸워 이긴 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월나라를 경계하라는 오자서를 멀리하고 월나라에 매수된 백비와 같은 간신들에게 싸여 패권을 차지하려고 중원의 여러 나라와 다투는 동안 국력을 쌓은 월나라에 망하고 자신은 자결하게 되었다. 이때 오왕 부차가 월왕 구천에게 전에 자신이 구천을 살려준 예를 들어 이제는 자신이 구천의 부하가 되었으니 항복을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진 월왕 구천이 순간 망설였을 때 범려가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던 일을 잊으셨습니까!'라며 진언하여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고 부차는 결국 자살하게 되고 오나라는 망하였다.

오나라는 지금 중국의 南京(남경)과 蘇州(소주)가 있는 江蘇(강소)성에 해당하고 월나라는 杭州(항주)가 있는 浙江(절강)성이다. 지금은 중국에서 上有天堂 下有蘇杭(상유천당 하유소항:하늘에는 천당이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이라고 불리는 만큼 살기 좋은 곳이지만 예전에는 덩고 습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다. 즉 황하 유역의 중원에서 보면 양자강 이남의 미개한 곳으로 南蠻(남만) 또는 荆蠻(형만)이라고 비하하여 불렀다. 춘추시대 오나라는 북쪽의 제나라와 서쪽의 초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월나라와 국경을 접하였고 월나라는 서쪽의 초나라와 북쪽의 오나라와 접하고 있었는데 초나라와 제나라는 오나라나 월나라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강국이고 다만 월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자신들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서로 업신여기는 사이로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예전 부차와 구천의 뿌리 깊은 원한까지 있어 계속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서로 협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손자병법에 인용된 술연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라면 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과 같이 서로 적대적인 세력도 규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여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하려는 남진정책을 펴고 위협을 느낀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어 서로 도와 고구려의 공격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런 나제동맹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개로왕은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을 빼앗기고 전사하였으며 문주왕은 신라의 도움을 받아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를 보존하였다.

나제동맹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특히 東城王(동성왕 479~501)은 493년(동성왕 15)신라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 신라의 왕녀를 맞이하는 혼인동맹까지 맺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신라·백제 양국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웅진에서 泗泚(사비:부여)로 천도한 백제 聖王(성왕; 523~554)은 내정개혁과 관계정비를 통해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에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의 회복을 추진하였다. 성왕은 고구려가 안팎으로 시련에 처해 있는 것을 이용, 나제동맹군에 더하여 가야까지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551년에 삼국연합군을 형성,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나제동맹의 결과로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회복하였고, 신라는 한강 상류의 10군을 차지하였다. 한강 유역 탈환은 나제동맹군의 최대 승리였지만 동시에 최후의 승리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신라가 553년(진흥왕 14) 군사를 돌이켜 백제의 수복지인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新州(신주)를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구축하고 한강 유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신라의 전략에서 기인되었다. 이 같은 신라의 배신행위에 격분한 성왕은 非戰派(비전파)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54년 신라정벌군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백제군이 우세하였으나 崙山

城(관산성: 옥천)전투에서 신라의 新州軍主(신주군주) 金武力(김무력)에 의하여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성왕과 4명의 좌평, 그리고 3만에 가까운 군사를 잃었다. 이로써 양국 사이의 동맹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 뒤 백제와 신라는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 백여년 동안 원수관계로 돌아서고 말았다.

고구려가 강할 때는 나제동맹이 공고하여 서로 도와 고구려의 침입에 대처하였으나 고구려의 국력이 약하여져 남진의 여력이 없었지자 나제동맹은 무의미해져 서로 공격하는 사이가 되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사후 호해가 2세 황제가 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다스리자 백성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진승과 오광의 난 시작으로 사방에서 진의 폭정에 항거한 소요가 일어나 진에 의해 멸망한 6국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6국의 복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초나라가 가장 강력하였으나 진나라는 장군 장한을 내세워 초의 장군 항량을 定陶(정도)에서 대패시키고 그를 죽게 했다. 장한은 이 승세를 타고 조왕을 크게 격파하고, 거록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이에 맞서 항량을 이어 초나라 장군이 된 조카 항우는 영포를 보내 막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급해진 조왕의 대장 진여가 항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항우는 진나라를 치기 위해 직접 출병하기로 하였다. 항우의 군대가 막 漳河(장하)를 건넜을 때였다. 항우는 갑자기 타고 왔던 배를 부수어 침몰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뒤이어 싣고 온 술마저도 깨뜨려 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모두 불태워 버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3일 분의 식량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술마저 없었으므로,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과연 병사들은 출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렇게 아홉 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부대는 궤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여러 장수들의 맹주가 되었다. 이 破釜沈舟(파부침주)의 병법은 손자방법에서 인용되었고 그 후 여러 유능한 장군들이 군사들의 결사항전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후퇴할 곳을 차단하여 이기지 않으면 죽는 수 밖에 없다는 결단을 장군이 보여줌으로 군사들의 전투의지를 고취시키는 병법이다.

후한 말 여러 군웅할거시기에 袁紹(원소)는 4대에 걸쳐三公(삼공)을 역임한 명문가 출신으로 기주 병주 청주 유주 등 네 개 주를 차지한 최대의 군벌이었다.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황제를 끼고 황제의 이름으로 지방 군벌들을 제압하려는 曹操(조조)에게는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원소는 조조와의 官渡(관도)전투에서 패배한 후 병사하였고 그 남은 세력은 후계문제로 분열되어 있었다. 원소는 본부인에게서 원담 원희 두 아들을 두었고 후처사이에 원상이 있었으나 신하들의 장자를 제쳐놓고 어린 아들을 세우는 즉 廢長立幼(폐장립유)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로 어린 원상을 세웠다. 당연히 원소의 사후 원상과 원담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원담이 만일 조조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힘을 합하여 기주를 공격해 온다면 장차 대항할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건의에 따라 원상은 원담에게 가서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여 조조와의 전쟁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담은 黎陽(여양)성중에 둔병하고 원상군은 성 밖에 진을 쳐서 技角之勢(기각지세:군사를 좌우로 벌이고 서로 도우면서 공격하는 전술)를 펴 놓았다. 뒤를 이어 둘째 아우 원희와 조카 고간은 각각 군대를 영솔하고 와서 성 밖에 둔병 하였다. 하북군은 매일 출병하여 조조군과 교전하였으나 한 번도 승전하여 본 적이 없었다. 원상은 여양을 포기하고 도망하니 조조군은 뒤를 따라 원소의 본거지인 기주에 까지 압박하였다. 원상과 원담은 기주성 안으로 들어가서 굳게 지키고 원희와 고간을 성에서 30리 밖에서 虛張聲勢(허장성세:실제보다 부풀려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림)하니 조조군이 연일 공격하여도 성과가 오르지 않았다. 조조의 책사인 郭嘉(곽가)가 진언한다. '원씨 집안에서 맏아들을 폐하고 어린 아들을 세운데다 형제 사이에 서로 반목하여 권력을 다투고 있으니 급히 공격하면 형제가 서로 구원하고 늦추어주면 서로 쟁투하여 內訌(내홍)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은 남쪽으로 형주로 출병하여 유표를 토벌하면서 원씨 형제 사이에 변고가 생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변고가 생긴 뒤 공격하면 일거에 하북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조조군 앞에서는 서로 돕던 원소의 아들들은 조조의 군대가 형주로 떠나자 서로 반목하여 대립하였고 이에 조조군은 형주로 가기도 전에 돌이켜 다시 돌아와 그리 어렵지 않게 반목하는 원소의 세 아들을 토벌하고 원소의 하북 4개주를 점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투의 연속이다.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만나지 않을 수도 없다. 서로 호의적인 사람의 모임에서도 이익이 서로 상충하면 다투게 되고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도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는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지도자는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를 잠시 숨기고 나라가 지향하는 선을 위해 적절한 공동의 이익을 제시하며 아울러 적절한 위기감을 조성하여 서로 돕지 않으면 같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1. 학생교과서 [근골격의학] 출간안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필수정형외과학” 초판이 출간된 지도 벌써 19년이 지났으며 제2판이 출간된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필수정형외과학”이 그동안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학에는 비단 수술을 위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척추와 사지의 골다공증, 류마티스 질환, 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같은 다양한 내과적 치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명칭을 “근골격 의학” “Textbook of Musculoskeletal Medicin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학이 여러 방면에서 발달하는 가운데 정형외과학의 발달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의공학과 연관된 재료학과 각종 기기의 개발, 내시경수술 등 새로운 수술 기법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빠른 발전을 따라잡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골격 의학”은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정형외과학 교과서를 한두 사람이 모두 기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특히 담당하는 분야가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어 있는 요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국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께 전공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여 이를 편집하여 2년 동안의 꾸준한 준비를 거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 의학”이 외국의 우수한 교과서들에 비해 손색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보완과 개선을 하여 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독자들의 질책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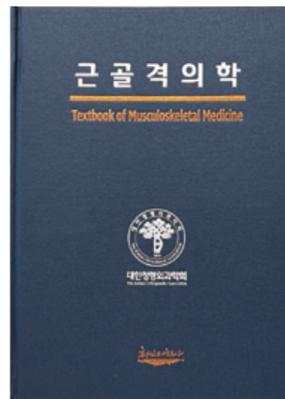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저자들과 수정과 보완을 하여 주신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원고를 정리한 편찬위원회 간사인 이화대학교 유재두 교수와 최고의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최신훈 박사 엄철 사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편찬위원장 이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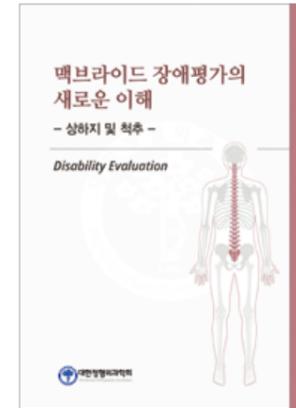
■ 주요분야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근골격계 영상의학, 재활, 골관절의 감염, 관절염, 신경, 근육 및 혈관 질환, 척추 질환, 견관절, 수부 및 주관절, 고관절 병변, 슬관절 병변, 족근관절 및 족부병변, 선천성 및 발달성 소아질환, 전신적 질환, 외상, 정형외과적 치료원칙, 중앙, 근골격계 통증관리, 노인의학

- 구입 : 최신훈 박사(Tel. 02-2263-4723)
- 가격 : 80,000원



2.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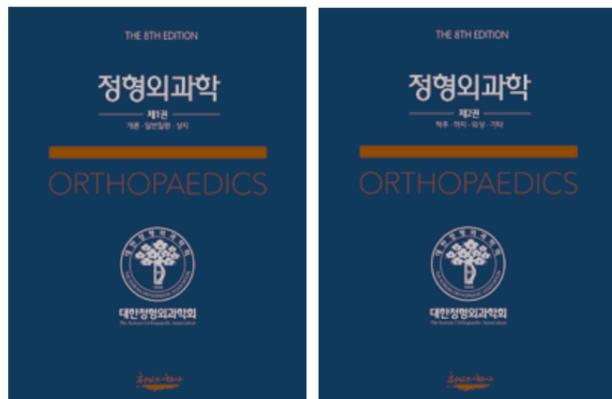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이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2020년 10월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장애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상 조건 외에도 사회적 여러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지 의학적 기준만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으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판정 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안과 너무 차이가 크면 사회적 저항 또한 증가함으로 개선은 점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는 현재 법원을 비롯한 많은 배상 관련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용하는 경우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장애인단체 발부 시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에 의하면…….” 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애평가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명입니다. 회원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장애위원회에서 논의 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다음번 개정판 발간 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학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정형외과 회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주실 곳 : 대한정형외과학회 E-MAIL: ortho@koa.or.kr

3.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 가 격 : 5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5. 「장애판정기준」- 사지및척추분야 제2판 -2012년 발간

- 가 격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 슬로건 |



| 7가지 생활수칙 캠페인 포스터 |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



홍보슬로건과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팜플렛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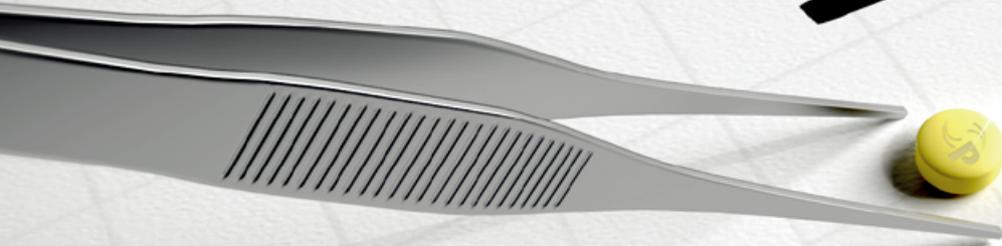


팜플렛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팜플렛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팜플렛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팜플렛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 ※ 질환별 팜플렛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 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팜플렛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SAIDs, 마침표를 찍어



급성통증 + 만성통증

급성 통증 열좌, 근육 및 힘줄 통증, 두통, 치통, 월경통, 피부염, 급성 상·하기도 감염 등

만성 통증 골관절염,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성분·함량] 1정 중 Pelubiprolen 45mg [성상] 연한 황색의 원형 서방성 펠름코팅정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 급성통증(예: 외상 후 동통, 원발월경통) [용법·용량] 1회 1정, 1일 2회 식후 경구투여 원발성월경통의 경우, 초기 권장 투여량은 1정, 필요시 투여 첫날에 1정추가 둘째날 부터는 필요 시, 권장량으로 1회 1정, 1일 2회 투여 [포장단위] 30정, 500정/Bottle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Daewon 대원제약

